

“고단한 유학생활 사찰음식 만들며 활력 되찾았죠”

언어도 피부색도 문화도 달랐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을 배우고 싶어서 이 땅에 온 유학생이라는 것이다. 꿈을 쫓아온 한국 땅이 마냥 좋지만 했었으랴. 부모와 떨어져 이억만리 타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쉽지만은 않았을 터. 낯설고 물신 땅에서 유학생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일상의 답답함과 고단함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1박 2일이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나눔 캠프 개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한국사찰음식 나눔 캠프-아름다운 인연'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일본 파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타지키스탄 과테말라 온두라스 콩고 등 15개국 200여 명 학생들이 참여했다.

사찰음식 만들기 기본자세

이들은 모두 동국대 한양대 배재대 순천향대 등으로 유학한 학생들로 한국 문화체험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 이번 캠프에는 사찰음식 만들기, 각 나라음식체험, 숲길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5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학생들은 조리실에 모였다. 드디어 이번 템플스테이의 메인 프로그램인 사찰 음식 만들기가 시작됐다. 참가자 앞에는 연잎과 전참쌀 주먹밥, 또 절인 배추와 양념 등이 놓여 있었다. '한국 사찰 요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모두들 궁금증이 가득한 눈으로

준비재료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찰요리 강사로 나선 분은 대전 영선사 주부 범송 스님이다.

범송 스님은 사찰 음식에 있어 '청정', '유연', '어법'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청정은 깨끗하고 맑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깨끗한 재료라는 말은 위생적이어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뜻도 포함돼요. 그다음 유연입니다.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 싱거운 맛 등 육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찰음식을 만드는 데에는 여법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가짐과 동시에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은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여기에 포함돼요. 이것이 사찰 음식을 만드는 기본 자세입니다"

드디어 연잎밥 만들기가 시작됐다. 참가자들 모두 자신 앞에 놓인 참쌀밥을 연잎에 올리고 그 위로 잣 호두 대추를 한 알 한 알 박아 넣는다. 이후 연잎을 곱게 접어 밥을 감싸고 곁을 무명실로 단단히 묶어 찜통에 찌내면 연잎밥이 완성된다. 연잎밥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는 범송 스님의 질문에 식당에서 먹어 봤다는 학생들이 몇몇 손을 든다. 하지만 엉뚱한 질문도 나온다. "연잎도 먹을 수 있어요?" 연잎은 먹을 수 없다는 스님의 답에 질문 학생과 주변 친구들은 까르륵 웃고야 만다.

중국에서 온 동국대 신방과 신지에 양은 아무지계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그 누구보

15개국 유학생 2백여명 동참 연잎밥·김치 등 사찰음식 체험

다 자신만만해 보였다. "한국에 온지 3년째예요. 그동안 유학생들을 위한 캠프에 많이 참여해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왠지 마음이 편해요. 훌륭한 자연속에서 스님들이 지도를 해주니 나도 모르게 고단했던 일들이 스르륵 녹으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느낌이에요. 동국대에 다니다 보니 불교문화에 익숙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사찰음식을 만들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사찰음식 체험을 해보니 색다른 기분입니다. 또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고 좋습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만들어진 연잎밥을 찌는 동안 김치 만들기가 이어졌다. 오신채를 썬 고춧가루 양념에 절인 김치를 버무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모두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만들기에 흠뻑 빠져 있었다. 한국에서 흔히 먹는 김치

콘서트·숲길명상·마곡사 방문 한국문화 체험하며 심신 건강 찾자

지만 자신들이 직접 버무려 본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캠프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다. 아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한 조쉬 맥니콜 동국대 교수와 5살 아들 정지성. 축구선수 박지성을 좋아해 한국인 아내의 성을 따 정지성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아들과 함께 참여한 맥니콜 교수. 한국의 사찰 음식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직접 사찰음식을 만들어보고 싶어 학생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했다고. 아빠를 따라 열심히하던 지성은 어느 순간부터는 집중력을 잃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 시작한다. 그래도 아버지 맥니콜 씨는 김치 버무리기에 열중하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맥니콜 교수는 "채식주의라 사찰 음식에 관심이 많다. 김치는 평소에도 즐겨 먹는 음식이라 직접 만들어 보니 더 흥미롭고 재밌다. 지성도 요리 체험을 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든 김치를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먹어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치 만들기가 끝나자 각자 선물 받은 항아리에 자신이 만든 김치를 넣기 시작한다. 그리고 항아리에 이름을 적어 넣으면 사찰음식 미션 완성. 김치를 만드는 동안 어느덧 찜 연잎밥이 완성돼 각자의 몫으로 하 나씩 나눠졌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연잎밥을 한 입 베어문 참가자들은 모두가 흐뭇한 표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온 림위레악(순천향대) 학생은 "캄보디아에서는 바나나 껍질에 밥을 싸서 먹는데 이렇게 연잎에 밥을 싸서 먹으니 특이하고 새롭다"며 소감을 전한다. 사찰 음식 만들기가 끝나자 전통공예체험으로 마련된 전통등 만들기가 진행됐다. 각자 연꽃잎 종이를 붙이면 하나의 등이 완성된다. 여기에 소원지까지 다니 더없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이어 4개국 요리 만들기 게임이 시작됐다. 8개의 조로 나뉜 팀이 게임을 통해 배정 받은 박스를 꺼내면 거기에 각 국의 요리 레시피와 재료가 들어 있다. 조마다 배정받은 음식은 감자뇨끼, 월남쌈, 팀삼 등으로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원들 모두는 공통의 주제에 맞추어 하나하나 재료를 손질하고 모양을 내다보니 서로 서먹서먹했던 관계도 스르륵 녹아들며 하나가 되었다.

경연대회가 끝나고 사찰음식으로 즐거운 저녁을 마치고 '나눔 콘서트 - 오라차차! 청춘들이!'가 펼쳐졌다. 장영한 전통대북공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대학교 댄스 동아리, 전상의 하모니 아카펠라 그룹, 대학교 응원단의 공연 등이 펼쳐져 열기를 더했다. 다음날 아침인 26일에는 숲길 걷기를 시작으로 마곡사 방문이 이어져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한국 사찰 예절도 배우고 계곡에 발도 담고 저마다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한때를 만끽했다.

글로벌 시대의 대학생들

일본에서 유학한 동국대 나가미네아리사 학생은 "경주 여행을 해보고 한국 불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일본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교환학생으로 동국대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유서 깊은 절 마곡사를 둘러볼 수 있어 아주 좋다. 또 여기서 많은 친구들과 알게 돼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제 1박 2일의 일정이 다 끝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먹고 잘 놀며 한국문화를 체험한 200여 학생들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타향살이에 지친 고단함도 훌훌 털어 버렸다. 이제 그들 모두는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범진 스님은 "삶의 양식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문화는 나라마다 고유한 맛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 세계화의 앞날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한국 문화의 진수를 체험하고, 폭 넓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통공예 체험 '연등만들기'



들꽃날 진행된 마곡사 방문



동국대 맥니콜 교수와 아들 지성이의 사찰요리 체험

아산시 번영 기원 시민화합 경로잔치

화합한마당

◎ 2012년 9월 15일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한국불교대불종 만주사 (송악면 송학리 109-1) 041)547-7792 / 011-287-1710



법황 보 광 예하
獅子吼 를 내리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29호 보유자
이은관



김삼중



사)예봉국악단 단장
윤태길



임동환



박성현



「노래자랑」
「고향아줌마」
김상진



「쇠를 먹는 사나이」
김승도



진행 : 윤석
KBS 아침마당 초청가수



이재연



노란사쓰입은사나이
한명숙



각설이



월연



나순금

후 원 : 연합불교방송, 불교TV, 일봉신문, 충남신문 협 찬 : 온아노인대학, 사)배뱅굿보존회
주 최 : 한국불교대불종 만주사 041)547-7792, 011-287-1710